

‘지역 넘어 전국으로!’… 황병우 회장, 영업망 확장 가속화

DGB금융 회장 취임 6개월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마무리
성장동력 확보·내부 혁신 앞장

전국 영업망 확대로 경쟁력 강화
지역 금융권 퇴직자 대규모 채용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 추진

국내 최연소 금융지주 회장인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반년을 맞았다. DGB금융의 숙원 사업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전국구 영업 확대’라는 목표에 주력하는 황 회장과 DGB금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평직원에서 회장이 되기까지

iM뱅크의 설립 연도인 1967년에 태어난 황 회장은 iM뱅크 평직원으로 시작해 DGB금융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DGB금융의 ‘혁신’에 앞장서 왔다.

황 회장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5년 iM뱅크에 입행했다. 2005년부터 기업금융컨설팅을 담당하며 두각을 드러냈고, 2012년에는 단독 부서로 승격된 경영컨설팅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300개 이상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DGB금융

의 지역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이끌며 ‘지역 경제 전문가’로 성장했다.

센터장 재임 당시 황 회장은 ▲경영 컨설팅을 통한 지역기업의 질적 성장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은행과 지역기업의 동반성장 ▲기업고객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전략을 통해 지역에서 DGB금융의 기반을 탄탄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전략은 당시 타 지방은행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전임인 김태오 전 회장

의 취임과 함께 DGB금융지주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DGB금융지주로 소속을 옮겼고, 2021년에는 그룹 미래기획총괄로 취임해 DGB금융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이끌었다.

벤처캐피탈사인 하이투자파트너스, 핀테크사인 뉴지스탁 등 주요 계열사가 인수합병(M&A)을 통해 DGB금융에 합류한 것 또한 이 시기다. 특히 뉴지스탁 인수는 국내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을 성공적으로 직접 인수한 최초 사례다.

2022년 지속가능경영총괄 취임 이후에는 내부 혁신에도 힘썼다. 역할과 역량 중심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신인사제도’를 도입해 일반직원의 직급(1~7급)을 폐지했고, 부서장을 제외한 직원의 호칭을 단일화했다.

작년에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으로 전환기를 맞이한 iM뱅크의 은행장으로 취임했고, 시중은행 전환을 기획 및 진두지휘하며 전환을 성사시켰다. 이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새 시중은행이 탄생한 것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이다.

DGB금융 내에서 다방면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황 회장은 지난 3월 DGB금융의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다. 은행

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이다.

◆황병우의 DGB…당면 과제는 ‘전국 영업망 확대’

황 회장과 DGB금융의 최우선 과제는 주요 계열사인 iM뱅크의 ‘전국구 영업 확장’이다. 지난 6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DGB금융의 성장 동력이 될 iM뱅크의 영업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앞서 황 회장은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당시 전략으로 ‘뉴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개인금융 부문에서는 비대면 금융에 집중해 금리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문성 높은 기업금융전문가를 통해 방문형·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iM뱅크는 지난 7월 강원 원주에 첫 ‘거점 점포’를 출점했다. 거점 점포는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인력을 별도 채용 및 배치해 기존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특화 점포다. iM뱅크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개 거점 점포를 추가 출점할 예정이다.

iM뱅크가 올해 두 차례 진행한 전문인력 채용에서도 영업망 확대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iM뱅크는 지난 2월 수도권·충청 지역 금융권 퇴직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직무는 기업금융·영업, 기업 여신심사 등으로, iM뱅크의 1인 지점장 제도인 ‘기업금융전문가(PRM) 확대’를 위한 채용이다.

이어 지난 8월에도 디지털 부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직무는 UX·UI(사용자 경험·사용자 공간), 애플리케이션 개선, 간편결제 개발·운영, 제휴 콘텐츠 기획 등으로, 모바일·디지털 역량 강화를 채용 목표로 했다.

DGB금융은 iM뱅크의 영업망 확대 이후 그룹 자회사 간의 시너지 강화에 힘을 전방이다. DGB금융은 그룹 내에 iM뱅크와 하이투자증권뿐만 아니라 iM증권, iM라이프, iM에셋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황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계열사들의 전국 업권이 같아지고 나면 그룹 시너지를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객과 상품, 채널 각 영역에서 그룹의 역량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상담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보험사, AI 활용 디지털 전환 빨라진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세일즈 플랫폼

iM라이프

AI 기술로 변액보험 펀드 운용 강화

KB손해보험

AI 맞춤형 보험 서비스 개발 추진

보험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보험 상품 및 고객 서비스 등에서 AI를 활용하면서 다방면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 플래닛은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한다. 최근 화두인 AI 기술을 적용해 고객 상담 고도화 프



챗GPT가 생성한 보험업계 인공지능(AI) 활용 이미지.

로젝트에 나섰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옴니채널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해 고객이 채팅이나 전화 등 다양한 옴니채널을 이용해 최적화된 보험을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 일환으로 전문상

담사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채팅 상담 세일즈플랫폼을 개발한다.

AI 상담 어시스턴트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고 검토해 전문상담사 업무를 지원한다. 전문상담사는 과거보다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다양한 고객 문의에

도 일관된 양질의 답변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전문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iM라이프는 변액보험 운용에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AI를 도입했다. 지난 8일 기존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의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형’ 펀드에서 AI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AI글로벌다이나믹’ 펀드를 새롭게 편입한 ‘마이솔루션AI변액연금S’를 선보였다.

AI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기존 펀드보다 잠재 리스크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투자자산 트렌드 분석 AI를 강화했다.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목표 달성 확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변액보험은 DGB금융지주의 시중금융그룹 전환 이후 선보인 첫

상품이다. iM라이프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을 적용한 변액보험 상품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지난 20일 모아데이터와 함께 AI 기반 보험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아데이터는 AI를 활용한 위험 탐지·예측 플랫폼 운영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금 부당 청구 탐지 및 사기 적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장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뎌 보상 못받아

💡금감원 Q&A

Q. 운전자보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단,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

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 혹은 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

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되니 합의 전에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달 둘째 주 전국 11곳서 5353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5353가구(일반분양 309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양우내안페르스티지’, 경기 이천시 증일동 ‘힐스테이트이천역’, 제주도 제주시 오라이동 ‘위파크제주’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차주는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가 전무하다.

양우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연신내양우내안페르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

상 22층, 2개동, 전용면적 53~74㎡, 총 260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239가구와 공공임대 21가주로 조성된다. 지하철 6호선 구산역이 도보 3분거리인 초역세권 단지이며, 3·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도 가깝다.

호반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오라이동 일원에서 ‘위파크제주’를 분양한다. 총 2개 단지로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5개동, 전용면적 84~197㎡, 686가구 중 6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동, 전용면적 84~197㎡, 715가구 중 643가구가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전지원기자 jjw13@